



'98 자주선언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내가 '주인'임을
선.언.한.다.

- 내 삶의 주인선언!
- 홍익인으로서의 주인선언!
- 여성의로서의 주인선언!
-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주인선언!

홍대 98년도 14대 총여 선거관리관.

우리를 찾는 싸움,
그 길라잡이가 되는 도움닫기
3천 여성누리로!

14대 여학생회 후보
최경숙 / 김주혜
선거운동본부



14대 여학생회를 준비하며.....

어느덧 여학생회가 있어온 지 1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나온 발자국마다 힘든 일들이 많았고,

그만큼 기쁜 일들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길들 중에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된 원인은 무엇이었는지를 되짚어

다가오는 1년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할 듯합니다.

최경숙

잘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은 그것의 원인을 잘 파악하여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도달하리라는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한 '방향'으로 꾸준히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무엇이 다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결코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에 어떻게 되고,

혹은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미 예전에 뭐가 되어도 됐겠지요.-

작은 성과들을 소중히 챙기겠습니다.

겪어온 오류들을 냉철히 판단하겠습니다.

100% 완벽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미완성이 상태에서,

홍익 학우들의 힘으로 조금씩, 조금씩 완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나'를 찾고,

'우리'를 찾고...

그 과정에서 겪게되는 많은 어려움들...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천 여성누리로!

최경숙

최경숙(영고 2)/김주혜(예술 2)가 드립니다.

김주혜

★14대 자주적 여학생회 후보★

최경숙♥김주혜 선거운동본부에서 드립니다

여학생회는 왜 존재하는가?

---남학생회는 왜 존재하지 않는가?

여학생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많은 학우들이 궁금해 합니다. 대체적으로 여학우들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말로 잘 설명을 못하겠어요....."이고, 주로 남학우들은 "여학생회? 근데 왜 남학생회는 없지?"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학생회가 왜 존재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남학생회'는 없는데 '여학생회'가 특별히 존재하는 것. 얼핏 보면 이것 자체가 남녀 불평등으로 보입니다. 그럼, 좀 더 시야를 넓혀 봅시다.

남녀가 평등한 - 성적 모순 없이 인권평등이 이루어지는 - 사회라면 '여학생회'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남녀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겠지요. 그럼,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성문제'(:성 문제, 성 모순)가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문제가 여성의 삶을 억압하고 그로 인해 남성의 삶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여학생회는 기본적으로 '여성문제'를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곳이며, 홍익 여학생회는 홍익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대표체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풀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여성들만 모여서 남성과의 전쟁을 선포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중심으로 남성과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성 모순'이 '여성문제'로 표현되듯, 성 모순에 의해 가장 억압받고 피해입는 대상은 바로 '여성'이며, 그리하기에 여성이 성 모순에 있어서 그것을 풀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의 문제이지 대학 내의 문제인가...? 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와 '대학', '가정' 등의 단체들을 서로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기인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생활이 가정생활 따로, 학교 생활 따로, 사회 생활 따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생활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회 안에 대학이 속해 있듯이 그 문제들도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도 함께 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14대 자주적 여학생회 후보★

최경숙 ♥ 김주혜 선거운동본부에서 드립니다

<특집>성폭력!!!

성폭력이란?

우리는 흔히 '성폭력=강간'을 떠올린다. 그러나, 성폭력은 강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행, 희롱, 성기노출 등 '성(性)'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발생한 성폭력 범죄사건 중 단지 2% 정도만이 신고되고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합치면 한해 25만 건 이상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실태가 이런 지경인데도 우리 사회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직접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력에 대하여 무관심하였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예방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가해자보다 더 두려워 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中 몇 가지.....

성폭력은 젊은 여자에게만 일어난다?

그러나, 성폭력은 대상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은 생후 6개월 된 어린아이부터 60세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성폭력에 대한 신고율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사

실이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또한 극히 드물기는 하나 남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대개 폭력배들(혹은 정신 이상자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성폭력의 73%가 아는 사람(친인척, 이웃, 선배, 직장동료 등)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그들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는 우발적이라기보다 계획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14대 자주적 어학생활 후보★

최경숙 ♥ 김주혜 선거운동본부에서 드립니다

강간도 성관계론 가진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처럼 '순결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강간은 가해자와의 성관계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성적 폭행'을 당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나 행동이 강간을 유발한다?

그러나 실제로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야한 옷차림이나 행동을 보인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는 결국 성폭력의 원인을 여성에게 전가하려는 잘못된 생각이고, 여성의 기본권을 모독하는 발상입니다.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여성에게 '목숨을 바쳐' '순결(?)'을 지키라는 것인데, 과연 '진정한 순결'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기인한 이런 생각은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폭력의 실태!

얼마전 학생회관 화장실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여학우들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또한 이 문제를 같이 느낀 많은 학우들의 동참과 실천적 행동으로 사건이 있은 며칠 후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느날 우연히, 평화롭던 홍익 학원 내에 갑자기 일어난, 뜬금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필연적으로 나오게 된 하나의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유치원 원장이 원아 100여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11살 짜리 소녀 가장을 마을 주민 14명이 수십차례 걸쳐 성폭력을 가하여 피해자가 음독자살을 기도한 사례, 그리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많은 성폭력 사례들..... 그래서 영예롭게도 대한민국은 세계 성폭력 범죄 2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14대 자주적 여학생회 후보★

최경숙♥김주혜 선거운동본부에서 드립니다.

성폭력은 인간의 육체와 인격을 유린하는 사회적인 폭력이다!

학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부분이다. 사건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으로 취급 받는 부분과 '가해자'는 '폭력을 행사한 자'로 폭력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그래서 운 나쁘게 걸렸다는 담론. 이런 담론의 지반은 이 사회가 부여한 성의 불평등한 구조와 지배적인 가부장적 권력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성폭력의 문제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의 억압/불평등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문제이기에 성폭력 문제를 바라볼 때 있어서의 출발점은 현실 여성의 위치이다. 현실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남성의 타자로서 남성의 성적 대상, 소유의 존재이며, 가부장적 권력관계 속에서 늘 피지배의 위치에 놓여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의 주변적인 존재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그런 주변적인 존재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여성의 육체와 인격을 유린하는 폭력이 아니라 지배적인 남성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행위인 것이며, 성폭력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폭력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아니라 지배적인 남성권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폭력 문제는 암암리에 묵인되며, 끊임없이 조장되는 사회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문제를 은폐하고 전혀 해결할 의지가 없는 국가 또한 성폭력 범죄자인 것이다. 그렇기에 성폭력은 개인간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의 불평등한 구조와 가부장제 구조 (국가)가 행하는 '사회적 폭력'인 것이다.

성폭력 문제 담당 부서(:주체) 마련.

성폭력 사건은 사회적인 폭력이고 기본적으로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모순임에도 성을 터부시하고 은폐, 조작하려는 분위기 속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다른 폭력 사건과 달리 많은 어려움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며, 따라서 가해자 처벌로 종지부 지어버린 성폭력 사건은 근본적인 성폭력 발생의 예방 및 근절의 역할을 하지 못해 매년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을 낳게 된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성폭력 사건의 기본적인 원칙(:피해자 보호의 원칙)이 공유되지 못하고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속에 올바른 해결을 도출하지 못하는 데 있다.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차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가운데서 여성인권의 확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 해결 역시 '제 2의 성폭력'이 되고 마는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성폭력 해결의 올바른 관점할 도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일회성을 극복하고 근본적인 우리 사회 성 의식과 성 규범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보할 상시적인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현실에서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의, 인간의 육체와 인격을 유린하는 사회적 폭력이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각 학교 여성운동 단위와의 연대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성폭력 학칙제정이 필요하다

장운경(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학내 성폭력]. 최근들어 익숙하게 되어 버린 단어이다. 요사이 비슷한 시기에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학내 성폭력 사건의 영향이다. 보도를 접하는 사람들은 요사이 부쩍 학내 성폭력이 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내 성폭력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1. 학내 성폭력의 실태

1991년 4월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가 개소한 이래 1만 5천여 건의 상담을 받았다. 이중 교사와 강사에 의한 성폭력이 약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내 성폭력은 계속 발생해 왔다. 단지 사건의 노출을 꺼려 언론에 보도하지 않았거나 고소하지 않은 사건들이 대부분이었을 뿐이다.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깨달은 한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역시 대학 내의 성폭력이 위협수 위임을 말해주고 있다.

학생들이 경험해 본 성폭력의 유형으로는 불쾌한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이 30%로 가장 많았고, 육체 사생활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달갑지 않은 언급, 그리고 집요하게 강압적으로 원치 않는 데이트나 교제 강요가 각각 21%로 나왔다. 가해장소로는 뒤풀이 장소가 39%, 모교지(:MT)나 야유회 장소가 19%, 과장, 동아리방, 학생회실이 15%, 도서관은 6%, 식당과 한적한 곳이 4%, 하숙방과 복도가 3%, 강의실이 2%였다. 대학 내에는 성폭력의 안전지대가 없다는 듯 학교의 모

든 건물과 장소에서 성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내 성폭력의 원인으로는 잘못된 성문화 때문이 78%, 여학생을 동료가 아닌 활력소로 생각해서가 43%로 나왔다. 대학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자기계발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후유증에 시달리지만 특히 대학에서의 성폭력 피해는 결과적으로 사회진출을 포기하게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까지 하게 된다.

2.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과 그 후유증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은 성폭력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알게 또는 모르게 피해자의 학점이나 학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데 있다. 그리고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자 학업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기 저하 및 불쾌한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교 생활을 포기하게 만든다. 학교 생활의 포기는 결국 대학에 온 목적인 자기계발이나 사회 진출의 기회를 막아버려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까지 한다. 또한 학교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또 다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교수와 제자간의 성폭력 사건은 '교수'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와 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자'라는 관계의 특수성이 학생 자신의 인생을 걸고 문제를 드러내어 풀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피해자는 이중의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대 신정휴 교수 사건(:흔히들 '우조교 사건'으로 알고 있다.)이나 서울대 약대 교수 사건 모두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시간이 흐른 후에 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4대 자주적 여학생회 후보★

최경숙♥김주혜 선거운동본부에서 드립니다

3. 왜 학칙제정이 필요한가?

학내 성폭력 문제도 일반 성폭력의 문제처럼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얼마만큼의 후유증을 남기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경우도 가해를 해도 피해자 자신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고소를 꺼려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범죄로서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여성운동계에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년간의 노력 끝에 성폭력 특별법을 마련한 것도 성폭력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 가해를 줄이기 위함에 있었다.

성폭력은 엄격히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뿌리 박혀있는 순결이데올로기와 왜곡된 성문화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물론 성폭력 특별법이 여성계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지 못해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성폭력 특별법 제정 이후 이전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범죄인 보호를 받고 있다. 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신고소나 상담소 설치를 36%로, 학칙상 처벌을 34%로 꼽았다.

특히 학내 성폭력인 경우는 학칙제정의 필요성이 보다 더 대두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학교에 알려져 당하는 불이익, 더욱이 가해자가 교수인 경우는 학점이나 학위에 불이익이 올까봐 꺼리는 것이다. 이런 경우 성폭력 발생시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학칙에 담아 놓는다면 많은 피해자와 이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힘을 소진해가면서 이 일에 매달리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소에 접수된 사례 중에는 학교와 가해자, 피해자 모두 해결할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대책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다가 무마되어버린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해결방법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준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상담소에 접수된 사건 그리고 알려진 사건 이외에도 학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비밀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심각한 수위에 있다는 것은 이제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이고 대학이 이를 준비하는 곳이라고 확신한다면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떨어뜨리고 학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길일 것이다.



신리 회복

★14대 자주적 이학생회 후보★

최경숙 ♥ 김주혜 선거운동본부에서 드립니다

세상에 이럴수가!

대한민국, 나라 맞나요?

민주국가 맞나요?

-----아십니까? 재개발 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성폭력하는 일이 대낮에 자행되고 있습니다. 세입자 대책위와 직접 통화했고, 아직까지는 아래에 실린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물론, 이 천인 공노할 만행에 대한 어떠한 언론의 보도도 없습니다.-----

<1> 김XX님의 사실 확인 :

*집단 성폭행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동구청에 전화 (299-1640/0008)를 하니, 전단의견의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대로 집행하면 되지, 집단성 폭행사건은 형사사건 이므로 구민을 위한 구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인권이 유린되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성동구청! "법대로"하라는 식의 성동구청이었습니다.

<2> 성동구 행당동 1-2 재개발 조합과의 통화 내용

(성동구청장실, 성동구청 도시정비국장실, 성동경찰서에도 전화를 했지만 다음 사건에 대해 묻자마자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본인 : 어, 안녕하세요? 어..... 제가 지하철에서 무슨 전단을 받았는데요.....

사무원 : 아..... 예.....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본인 :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무조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까?

사무원 :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본인 : 어..... 1997년 9월 30일, 오전 9시경 서울 성동구 행당 1동 행당 1-2 재개발 구역에서..... 무슨 일 있었습니까?

사무원 : (아주 당혹스러워 하면서.....) 아..... 그거요..... 그..... 그날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요. 집다리들이 철거하러 갔었어요. 아시죠? 어..... 원래 그 땅 소유자들이 승소를 한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세입자들이 물러가야 하는데요..... 앓가는 거예요. 어쨌든 별일은 없었어요.

본인 : 원래 그 땅 소유자들이란..... 도대체 누구를 말합니까? 아주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그 땅을 소유했던 분들의 유가족이라도 됩니까?

사무원 : 그건..... 밝히기 곤란한데요!!!

본인 : 그럼 무슨 일이 있긴 있었다 이겁니까?

사무원 : 전 잘은 모르겠구요..... 어쨌든 집다리들이 경찰하고 같이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본인 : 저도 경찰한테 폭력을 당한 친구가 있는데..... 경찰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건..... 별로 신빙성이 적은데요.....

사무원 : 어..... 예..... 그러세요? 실례하지만 누구십니까? 전화번호라도 알려 주시면.....

본인 : (딸깍)

1997년 9월 30일..... 서울시 성동구 행당 1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그날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집다리들

이 경찰과 함께 철거하러 가서 세입자들과 심한... 무슨... 불미스런 일이... 있었던게 틀림없습니다. 이걸, 법원, 즉 공권력이 개입되어 일어난 불미스런 사건이기 때문에 신문에도 안나오고, 텔레비전, 라디오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3>세입자들의 항의서

다음은 지하철에서 받은 전단의 내용입니다. 어..... 1997년 9월 30일입니다.....(전 이 전단을 처음 보고 혹시 5공 시절에 뿌려진 전단이 어떻게 남아 있는 것 아닌가 했는데..... 오타가 아닙니다!!! 1997년입니다!!!..... 1987년이 아니에요!!!

=====이 사회의 양심에 고발한다!=====

백주대낮에 벌어진 끔찍한 성폭력 사태를.....

1997년 9월 30일, 오전 9시경 서울 성동구 행당 1동 행당 1-2재개발(조합장 : 예동해) 구역에 적준 철거 캠페 용역 500 여명이 군산락전을 감행하듯이 동네를 점령하고, 그 중 조직 폭력배로 구성된 선발대 100여명은 동네주민을 보는 즉시 남녀노소 가릴 것없이 무차별 구타하며 세입자 사무실로 쳐들어와 집단 성폭력을 자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청량리 외상 **로 나온 년들!>>

100여명의 캠페들은 세입자 사무실을 점거하고 그 안에 있던 10여명의 여자들에게 "청량리 외상 **으로 나온 년들아, **닭았나, **에 물도 안나오는 것들, 저년들 죽여도 좋아, 전농동서도 죽였는데 까딱 없어."라며 무차별 구타를 하기 시작했다.

여성들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그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저 년들 옷 벗겨서 끌어내!>>

적준 철거캠페 현장 소장 임화영은 명령했다. "저년들 옷 벗겨서 끌어내!"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적준 캠페 용역들은 여자 1명에게 4-5명씩 움푹한 옷을 지으며 달려들어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구타당하던 여자들은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두손을 꼬아, 한 손으로는 옷을 움켜쥐고 한 손으로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그러자 철거 캠페들은 여자들을 엎어놓고 올라타 머리를 방바닥에 짓이기는 등의 상상할 수 없는 야수같은 성폭력을 자행하였으며, 여자들의 젖가슴을 움켜 쥐고 공을 패스하듯이 이놈이 잡아서 저놈한테, 저놈이 잡아서 이놈한테 돌려가면서 추행을 서슴치 않았다.

<<내년들을 위해 **에 다마를 10개 박았다. 한 번 해볼래!!>>

캠페 철거용역 한 놈은 "내년들을 위해 **에 다마를 10개나 박았다. 한 번 해볼래!"하면서 혁피를 풀러 바지를 내렸다 오렸다 하면서 달려들어 여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떨며 주저앉았다.

<<기어코 한 여자의 윗도리를 벗겼다.>>

결국 한 여자의 윗도리를 벗기고저희들 끼리 히히덕거리며 젖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시작했다. 이에 저항하자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잠단으로 짓밟는 등의 폭행을하여 실신지경에 이르자, 개 끌 듯이 사

우리를 찾는 싸움

그 길라잡이가 되는 도움닫기 3천 여성누리로!

무실 밖으로 끌고 나와 아랫도리마저 벗기고 구둣발로 차는 등 반인간적, 반인륜적 작태를 아무 꺼리낌없이 자행했으며, 이를 말리는 여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벽에 머리를 부딪쳐 실신케 한 뒤에 읍부름을 움켜쥐고 뒤흔드는 만행을 저질렀다.

홍익학우 여러분!!!!!! 시민 여러분!!!!!!

도대체 백주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작태가 아무런 제지없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양심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유린한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나라의 수치이며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이기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반사회적, 반국가적, 반국민적 성폭력 집단인 적준 철거 회사는 우리들의 힘으로 해체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런 반인간적 반인륜적 집단을 고용한 행당 1-2지구 재개발 조합장 예동해는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며,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재개발 사업 중지 명령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

●적준 철거회사 사장 정숙종을 구속하라!!!

●성폭력 진두 지휘한 김영배(:본명 김윤제), 임화영을 즉각 구속하라!!!

●폭력 정파 집단 철거회사 '적준'을 해체하라!!!

●성폭력 휘두른 조직폭력배들을 구속하라!!!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

●폭력집단 고용한 행당 1-2지구 재개발 조합장 예동해를 즉각 구속하라!!!

▶▶▶ 항의전화

- ◆ 성동 구청장실 : 299-0008, 1640
- ◆ 성동 구청 도시정비국장 : 290-7338, 7308
- ◆ 성동 경찰서 : 293-1237
- ◆ 행당 1-2재개발 조합 : 294-3013

<우리들의 힘을 모아야만 성폭력을 용정하고 추방할 수 있습니다.>

★14대 자주적 여학생회 후보★

최경숙♥김주혜 선거운동본부에서 드립니다

강제연행당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 우리도 일본여자를 강간하자?!

나는 사람들이 정신대 문제를 일제담배 불매운동이나 독도문제와 함께 묶어 사고하는 것을 자주 본다. 과연 이 문제의 핵심은 '국민성'이 근본부터 야만적인 천하의 나쁜 나라 일본에 대한 징계'일 것인가?

우리는 어려서부터 역사를 배운다. 거기에는 세계의 주요정복자들과 지배자들과, 서로의 나라를 침략한 남자와 국내의 주요 세력들의 변천사가 굵직굵직하게 나와 있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 보자. 내가 만약 신라 말기의 아줌마들의 움직임이나 생각들을 알고 싶으면 무엇을 보아야 하나. 전쟁 중 인구의 반이 되는 여자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알려면 국사책의 몇 페이지를 펼쳐야 하나..... '역사'라는 것의 정의가 '기득권자들의 취사선택 과거지사'일진대 잊혀지고 소외되었던 인간들의 과거지사는 검열되고 삭제되기 십상일 것이다.

여기에 묻혀버린 역사가 하나 있다. 바로 세계 전쟁사에서 검열되었던 이야기 '전쟁 중 성노예의 역사'이다. 자, 이제 파편적으로 들려왔고 떠돌던 가설을 엮어 '역사 복원작업'을 시작해보자.

-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군과 영국군에는 '이동사창가'라는 것이 설치되었으며, 오스트리아-헝가리군도 자국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여성을 붙잡아 위안부를 만들었다.
- 아리아인의 순결한 씨를 심는다는 명목으로 나치인들은 수많은

유태인 여성들을 강간했으며, 얼마전 보스니아 내전 중에도 '집단 강간 캠프'가 발견되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것이 있다.

- 이태리 남성들은 전쟁이 계속되어 식량이 떨어지면 자신의 아내를 적군에게 팔아먹기도 했다.
- 베트남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치욕적인 일을 당했으며 가해자 중에는 당연히 한국군들도 포함되어 있다.
- 미군 기지 주변은 합법적인 매매춘과 강간의 소굴이 되어버렸으며, 이 나라 정부는 이곳 여성들을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는 애국자들'로 칭송하고, 미군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기적인 에이즈 검사를 실시한다.

●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前일본군 위안부가 있다.

전쟁은 중폭된 남성 패권주의의 결과물이다.

여성이 하나의 인간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다만 소유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렇듯 남성성이 극대화된 전쟁이라는 공간에서 여성은 군의사기를 고양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전쟁 필수품'으로 이용당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제 시야를 좁혀 국사를 볼까한다. 권력을 쥔 자들의 협조와 은폐 속에 지난한 성폭력의 역사는 이어진다. 철거철이면 여지없이 용역깡패들은 부녀자의 몸에 몹쓸 짓을 한다. 암울했던 80년대 운동을 했던 여학우들은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경찰서에 끌려가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신체검사를 받거나 각목으로 구타를 당했다. 최근 병원노련 사무실을 침탈한 전경들은 한 여성 운동가를 성추행했다. 지난 봄 이대생들은 고대 남성 집단의 성폭력을 또 한 번 감내해야 했다. 그리고 8.15 범민족대회 때 연대에서는 기자들과 상사들의

★ 14대 자주적 여학생회 후보 ★

최경숙 ♥ 김주혜 선거운동본부에서 드립니다

암묵적 협조 하에 학생을 연행하는 전경들은 손으로, 각목으로 그리고 그들의 세지 혀로 여학우들을 겁탈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자국의 공권력, 혹은 남성집단은 다양한 통로로 자국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한다. 이 모든 사건들은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또 하나의 숨겨져있던 '거대 서사'로 읽혀져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정신대 문제에 분노하며 "한국 군이들에게 당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겠다. 어떻게 감히 우리 한국 여성을 더러운 일본놈들이..... 우리도 일본 여자들을 강간해 버리자!"라는 무서운 말을 하는 이가 없어질 것이다.

이제 우리가 문제제기해야 할 부분은 전쟁 문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고 말았던 군바리 정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우리 사고를 지배해왔고, 일상의 곳곳에 잠복해 있는 가부장적 망령일 것이다. 그 중 가장 적나라한 '전쟁 내 여성 성노예의 역사'를 발굴해내고 해결해내는 그 첫발을 떼는 이들은 바로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과 이 땅의 여성들이다. 우리가 이기면 전 세계 여성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소중한 '침묵'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소명의식에 두눈 번쩍 떠야 하지 않을까?!

<추모> 10월 28일,

故 윤금씨 살해사건 이후 5년째...

1997년 10월 28일은 故윤금이 씨가 살해당한지 5년째 되는 날입니다.

92년 10월 28일. 동두천 어느 허름한 방에서 발가벗겨진 채 온몸에는 세제가 뿌려져 있고, 자궁에는 플라병, 맥주병이 박혀 있으며, 우산대가 항문을 찢어 목까지 관통한... 참으로 처참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금씨.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대던 일명 '양공주'였다.

그녀를 살해한 이는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미 육군 케이시 부대의 '케네스 마클'. 그는 성관계후 돈을 지불하라는 윤금씨를 병으로 머리를 구타하고 위와 같이 살해했다.

제 2의 을사조약이라 불리는 '한미행정협정'에 따르면 미군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 법정에서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살인을 저지른 미군을 한국에서 한국 경찰(헌병)이 잡는다고 하여도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어떤 조건없이 넘겨줘야하며, 그렇게 되었을 때 살해 미군은 자국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윤금씨 사건의 경우는 달랐다.

양공주라 천시받던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을 천시

우리를 찾는 싸움

그 길리잡이가 되는 도움닫기 3전 여성누리로!

하던 주변 상인들이 함께 하기 시작했다. 주민들과 택시운전사들까지. 모든 동두천 시민이 동참하였다. '택시에 미군 안 태우기', '미군에게 물건 안 팔기'.....등, 기지촌 시민들의 생업은 모두 '미군'을 통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싸워 나갔다. 그리고 결국엔 범인을 한국 법정에 거의 최초로 세우게 되었다.

바로 국민들의 단결의 힘이 미국으로 하여금 신병인도를 포기하게 만들었고, 기존의 불평등한 '협정'을 쫓아낼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윤금이씨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힘에 의해 그 죽음의 본질을 파헤칠 수 있었고, '미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큰 변화를 주게 되었다.

주한미군범죄는 지금도 연평균 2000여건, 하루 평균 5건씩 매일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옛날처럼 쉬쉬 하고 입다물고 있지는 않는다. 아직도 예측된 관계로 인해 해결이 안되고 있으나,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를 시민들 스스로가 꾸려 미군범죄 규탄과 불평등한 한미행협 개정운동을 펴고 있다. 그 작은(?) 활동들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그것에 동의하게 되었다. 이제 지나온 것들을 더 발전 시키면서 문제의 뿌리에 가까이 다가서며 뿌리를 뽑아야 할 때이다.

민족의 모순, 계급의 모순, 성의 모순을 한 몸에서 다 안고 살아가다가 목숨을 잃으신 故윤금이씨..... 오늘 다시 그녀의 죽음을 되돌아보는 것은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에서가 아니다.

억울하게 죽은 그녀를 추모하며, 그녀의 죽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심금 되새기자는 것이다.

최경숙

김주혜



★14대 자주적 이학생회 후보★

최경숙♥김주혜 선거운동본부에서 드립니다

<약속> 14대 여학생회를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여성운동에 대한 전문성 강화

성은 더 이상 '달콤'이 아니와 우리 삶 그 자체!

◎성폭력에 대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내자!

▶성폭력 담당 부서 마련

▶성폭력과 관련한 강좌마련

▶성폭력 네트워크(?) 구축

---모든 일이 그렇듯이 성폭력 역시 사회와 동떨어져 '어떤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 상담소를 비롯하여 각 학교/사회단체들과 연계함으로써 성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성폭력 책자 발간

◎일상에서의 여성문화 확보

---작아 보이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들부터...

▶여학생 휴게실과 관련

▷여학생 휴게실 개방시간 늘림

---학관 휴게실은 밤 9시까지, 여학생 휴게실은 오후 5시까지?

개방시간에 대한 요구가 해년마다 있어왔고, 그것을 계속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는 '여학생들이어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위험 요소에 대한 대책마련은 없이 말입니다. 98년엔 작은 대안이라도 여학생회 일꾼들이 책임지면서 개방시간을 늘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학생 휴게실 내 작은 도서관 확립, 증부화

---얼마 전에 마련된 여학생 휴게실 내의 <작은 도서관>을 아십니까? 여성문제와 관련된 책들을 배치하여 학우여러분의 자율적 운영 속에서 학우여러분의 의견으로 만들어지는 <작은 도서관>. 98년에는 더욱 알찬 모습으로, 학우여러분의 참여 속에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학우 샤워실 확보

---어느새 남학우 전용 샤워실이 되어버린 듯한...

여학우들이 샤워하기엔 왠지 위험한듯한 곳. 여학우들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년 작은 영화제에 이어 '쫄 킷다, 영화제'

---97년에는 한 달에 한 번 <작은 영화제>를 열었습니다. 98년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더욱 알찬 내용으로 일상 영화제를 하려 합니다. 이름하여 <쫄 킷다, 영화제!>

월별로 주제를 달아 주제별 영화를 상영할 것입니다.

우리를 찾는 싸움

그 길라잡이가 되는 도움닫기, 3천 여성누리로!

◎사회 속의 여성문제 = 바로 나의 문제!

▶ 고통받는 민중들과 함께 합니다.

▷ 강제로 끌려간 일본군 위안부(정신대) 할머니들과 연대

— 식민지 사회와 전쟁 속에서 우리 여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 역사와 여성들의 삶에서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상처로 남아있는, 그리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해결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인 할머니들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이 땅의 아픔을, 우리 여성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결코 '담'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기지촌 여성들과 연대

— 제2의 정신대라 불리는 기지촌 매매춘 여성들. 결코 과거의 일만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바로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여대생'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아픔을 그대로 안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함께 나누며 더 큰 삶을 배웁니다.

★ 학우들과 함께 하는 대중사업

— 하나를 해도 치밀한 준비 속에서
학우들과 함께
준비하고 배우는 대중사업을 하겠습니다.

▶ 성폭력/매매춘/여성취업난..... 이 모든 것은 따로 떨어져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한 학기 사업들을 함께 모아 풀어내는 자리로 마련하여 전반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기증과의 확실한 통로마련의 길

▶ 기증단위 건설 및 강화

: 과 여학생회가 없음으로 인해 너무나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여학생회.

현재 여학우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모임들이 있는 곳은 더욱 강화하고, 없는 곳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여학생회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학우여러분과 여학생회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학우들과 보다 가까이!

▷ 여학생회 전용 게시판 마련

— 언제 어디서건 여학생회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여학생회 전용 게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학우들과 함께 하는 대중사업

기증과의 확실한 통로 마련을 위한 노력

★ 14대 자주적 여학생회 후보 ★

최경숙 ♥ 김주혜 선거운동본부에서 드립니다